

# 국민학교편

오 명 숙

서울응암국민학교 양호교사

건강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증가와 더불어 어려서의 건강 습관이 일생 동안을 좌우하므로 국민학교에서의 보건교육의 중요성은 어른층보다 소중하며 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페스탈로찌는 “아동들이 건강이 유지되어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야만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학교 보건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점은 대상자가 한 곳에 모여 있으며 교육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고 변화가 용이한 시기이며 학교가 지역사회의 지도급에 있으므로 학생을 통한 건강 습관의 변화는 지역사회까지 파급할 수 있어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보건교육을 계획하는 과정으로는 학교보건 관리기준에 학년별로 주제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에 준한 범위내에서 실시되기도 하지만 대상자의 교육 요구 측정의 첫째 단계는 아동이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데 아동 스스로가 지키면 해결될 문제들이 지켜지지 않아서 오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일이다.

즉 교육으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교육 요구 측정의 단계이며 이는 통계자료 이용, 직접조사 면담 등을 통하여 찾아낼 수 있다.

앞에서 찾아낸 문제점을 어떤 상태로 변화시킬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목표를 수립하고 학습목적이 세워졌으면 이 목적을 도달시킬 수 있는 학습내용이 선정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을 계획해서 실천하는 데는 처음부터 학습목적에 직접들어 가지 않고 주의 집중과 흥미유발, 욕구유발 등을 유도하는 도

입 단계에 대한 시간을 적절히 배정하여야 한다. 교육요구를 추정하고 학습목표와 내용은 잘 계획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을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적절하지 않으면 목표 도달에 많은 차질을 초래하게 된다.

교육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다음 단계는 목적 도달에 도움을 주는 교육보조자료의 선정이다. 보조자료는 학습의욕과 흥미유발과 동기유발이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계획자들의 특별한 고려가 요구된다.

마지막 단계는 계획해서 실천한 학습목표가 도달되었는지 도달되지 않았으면 왜 안되었는지를 알아보는 평가방법 및 기준의 설정이다.

국민학교에서 일반적으로 보건교육의 방법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가정통신을 통하여 학부모를 교육시키는 방법, 담임교사를 보건교육시켜 담임교사로 하여금 아동들을 교육시키게 하는 방법, 전교생 방송을 이용하는 방법, 각 교실에 들어가서 한 반씩 교육시키는 방법 등 여러가지 방법중에서 자신의 여건에 맞게 한가지 또는 여러가지 방법을 선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보건교육이란 반드시 시간을 정해서 갖추어진 형식으로만 실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 아동들이 양호실에 찾아 왔을때 그때 상황에 맞는 보건교육을 시키며 또한 복도나 운동장에서 건강이상 아동을 발견했을 때 그 아동에게 필요한 보건교육을 간단히라도 실시하므로 아동자신이 예방이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예방을 하고 조치를 취하여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학년별로 보건교육 주제를 정하여 실시하고 있지만 해당 학년의 학교보건 업무에 준하여 실시하기도 한다. 예를들면 1학년에서 혈액형 검사를 실시할 때 혈액과 혈액형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고 혈액형의 중요성, 혈액형의 종류, 아동 자신의 혈액형 및 가족들의 혈액형 알아보기에 대해 1학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범위에서 검사요원이 검사를 하기전에 먼저 교실에 들어가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하얀 까운을 입은 많은 사람들이 교실에 들어가서 바로 검사를 하려고 하면 아동들은 우선 겁부터 먹게 되고 분위기가 엉망이 되어 검사도 순조롭게 실시할 수 없게 된다. 디티와 소아마비 예방접종 할 때에도 가정통신이 물론 배부된 상태이므로 예방주사를 맞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예방주사는 왜 맞는 것이며 또 오늘 주사맞는 것은 어떤 병을 예방하기 위한 것일까? 이러한 예방주사를 맞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될까? 그리고 예방주사를 맞고 나서의 주의점 등에 대해 교육을 한 후에 접종을 실시하게 되면 집단 접종에서의 효과를 더욱 얻을 수 있다. 또한 PPD와 BCG 접종시에도 앞에서와 같은 상황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접종하게 되면 아동들은 거울과 같이 선생님에게서 받은 모든것을 그대로 투영시키게 된다.

불소양치사업 실시할 때에도 학교에 수도시설이 부족한 관계로 등교 하자마자 실시하기 때문에 가정통신을 통하여 보건교육 후에 학부모와 아동과 양호교사가 삼위일체가 되어 불소양치 하기 전에 반드시 이를 닦고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만 한다.

보건교육시 교육보조자료 선정에서 가장 좋은 보조자료는 변화하고자 하는 내용의 실물이나 실제상황이다. 또한 실물이 불가능한 경우 모형을 선택하기도 한다. 그러나 보조자료 선정시 고려해야 할 점은 전체 대상자가 다 듣고 볼 수 있는 자료이어야 하고 학습목적에 따라 단계별로 제시되어야 하며 적절한 시간이 배정되어야 한다. 또한 쉽게 구할 수

있고 조각이 간편하여야 하며 경제성이 있어야 한다.

교육보조자료를 적절히 선정하여 아동들이 함께 참여하게 하는 방법으로 구강보건에 대한 교육을 할 때에 칫솔과 치약과 물컵 등을 보조자료로 선정하는 것이 가장 목적도달을 용이하게 된다. 그리고 그림을 준비하여 치아에 좋은 음식과 해로운 음식을 분류해서 용판에 붙일 수 있도록 아동들을 참여시킨다거나 모형치아를 사탕처럼 예쁜 모양으로 포장하여 아동들에게 보여 주기 전에 “이것은 무엇 일까요?” 하면서 교탁안에 넣어 두었던 것을 꺼내어 보여 주게 되면 주의집중 및 흥미유발로 교사와 학습자가 더욱 효과적인 수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생충 관리에 대한 보건교육후 아동들이 손을 씻을 때 물을 묻히기만 하던 아동들이 비누를 이용해서 흐르는 물에 몇번이고 깨끗이 씻는 모습과 손톱을 짧게 자르고 다니는 아동들을 볼 때 담임교사들은 한결같이 위협(?)을 느낀다고 토로한다.

보건교육을 받고 나서 이렇게 학습효과가 아동들의 태도 변화까지 가져올 때 양호교사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느끼게 한다.

그러나 보건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정규 교과목으로 되어 있지 않고 양호실 운영 문제가 대두되므로 여러 조건들이 배려되어야만 하겠다.

〈참고서적〉

김화중. 학교양호실무, 수문사. 1986.